

사회

'도심 흉기' 대형트럭... 길 걷기 무섭다

봉선시장서 또 행인 치어 사망... 나흘만에 5명 참변

4.5t 이상 도심 진입 허가 규정 '유명무실'

지난 19일 광주의 주택가에서 4명이 사망한 레미콘 트럭 사고(본보 5월 21일자 6면) 발생 후 나흘 만인 23일 또다시 도심을 통과하던 대형 트럭이 행인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광주 시내를 운행하는 대형트럭에 대한 특별한 제한 조치가 없어 예견된 사고이기에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나흘 동안 5명 사망=23일 오전 11시37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봉선시장 입구 2차선 도로에서 이모(43)씨가 운전하던 06라56XX호 25.5t 덤프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산인 A(여·72)씨를 들이 받았다. A씨는 덤프트럭에 깔리면서 현장에서 숨졌다. 운전자 이씨는 경찰에서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 순간 차량 앞에 서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정차시켰던 이씨가 2.5m 높이의 운전석에서 트럭 바로 앞을 지나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유명무실 제한 규정=현행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통행의 금지 및 제한)과 광주경찰청 고시에 따라 4.5t 이상의 화물자동차, 중기(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레이콘트럭 등), 폭발물 및 고압가스 운반 화물차량은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허가를 받고 통과하도록 돼 있다. 통행 금지 구간은 남광주 사거리를 시작해 서방사거리~신안사거리~하남로~치평IC~계수로~서창IC~제2순환도로~풍암IC~회재로~대남로~남광주사거리로 이어지는 구역 내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이 구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광주 지방경찰청에 통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통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사 등을 이유로 신청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허가증이 발급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다.

광주경찰은 현재 통행제한 구역 운행 허가를 받은 중기가 모두 220여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허가구역 이외의 95개 공사 현장에서 모두 600여대의 덤프트럭과 530여대의 레미콘트럭이 운행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1100여대의 건설기계 차량들의 어떠한 제한도 없이 도심을 질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통행 허가가 없는 차량이 통행 제한 구역을 통과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단속이 힘들다는 이유로

■광주 대형트럭 통행제한 구역



별다른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대책 없나? =광주경찰청은 "광주 지역 모든 공사장에 공문을 보내 지방경찰청에 통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통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사 등을 이유로 신청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허가증이 발급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다."

"봉선동 레미콘트럭 사고 원인은 제동장치 이상"

지난 19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남구 봉선동 레미콘 트럭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원인을 차량 노후로 인한 제동장치 이상으로 보고 있다. 광주남부경찰은 23일 "사고 차량과 인근 정차 차량의 블랙박스, 목적

항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광주 지역 건설기계의 정기점검을 전담하고 있는 대한건설기계관리원 광주지점 중기자동차공업사에 안전공단 직원이 상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기계의 경우는 일반승용차와 달리 교통안전공단의 관리 없이 대한건설기계관리원에서 전담하고 있다.

경찰은 광주시에 협조를 요청해 건설기계에 대해 1년에 1차례 정기검사 외에도 12년 이상 된 노후 기계에 대해서는 수시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제동장치 이상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승선 정모(47)씨 소유로 15년 된 레미콘 트럭의 제동장치가 파열됐거나, 브레이크를 밟고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공기 압축식 제동장치'의 공기가 빠져면서 결합이 생긴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뢰해 정밀감식 중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도자기 체험 즐거워요" 23일 광주시 북구 임동 공영주차장 개장 행사장에서 '행복한 참조미'를 대원시장에 출탄!이 마련한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한 서림초등학교 학생들이 도자기를 만들어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원침 (8573) 김장두



호주산 소금 국산 둔갑 4배 폭리 1억 부당이익

수입 꽃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4배 이상 폭리를 취한 소금 판매업자가 해경에게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소금 판매업자 김모(67·장성군)씨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호주산 90%, 중국산 10%를 혼합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68t을 시중에 유통시켜 1억1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신안 두살배기 여아 아버지 차 깔려 중태

두살배기 여자 아이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목포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40분께 신안군 도초면 한 골목길에서 이모(2)양이 아버지(45)의 겐조퍼 차량에 깔렸다.

이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신안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뒤 다시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중이지만 중태다.

이날 사고는 이양이 오빠를 어린이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집을 나선 아버지를 배웅하던중 아버지가 이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출발하면서 발생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112 허위신고 큰 코 다친다

서부경찰, 주부·사업가에 각각 구류 5일

112 허위신고를 한 주부와 사업가가 나란히 구류 처분을 받고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3일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주부 윤모(44)씨와, 회사 차량이 도난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건설업자 이모(38)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결과 각각 구류 5일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주차

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를 다른 차량이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윤씨는 이날 새벽 2시께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이 사실이 들뜬 것을 우려해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즉시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월22일 "회사의 차량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들켰다. 이씨는 남은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차량을 가져간 지인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자 차량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구류 5일의 유치명령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며 "최근 불필요한 허위신고 등으로 경찰차량의 낭비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난전화나 허위신고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기아차 운반트럭 화염병 피습 화물연대 노조원에 수사 초점

장성경찰, 운송업체에 명단 요청

기아차 운반트럭 고속도로 화염병 피습 사건(본보 5월 23일자 6면)과 관련해 경찰이 화물연대 노조원들에게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3일 장성경찰은 기아차 탁송업체인 '글로벌'에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 카게리어분회 소속 노조원 52명의 명단을 요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연대 카게리어분회가 과업 중인 가운데, 비노조원들의 정상운행으로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노조원들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화물연대 카게리어분회 노조

원과 비노조원, 글로벌스에 포함된 4개 협력사 사이에 '복지기금'을 놓고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측은 과업을 통해 비노조원 18명에게 매달 5만원씩 지급되던 복지기금을 노조비로 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었다. 이후 글로벌스와 4개 협력사는 최근 '금정' 의사를 전달했지만 노조가 일부 협력사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사건이 발생한 고속도로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지부 CCTV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놓은 상황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여고생 성추행 뒤편 선원

○여수해경은 23일 여주시 남면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여객선 선원 신모(61)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신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4시께 여객선을 타고 하고하던 A양(17)의 가슴 등을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

○신씨는 지난 2010년 7월에도 선실에서 당시 초등학생 6학년이었던 B양을 성추행하기도 했었다고.

/동부취재본부=김희화기자 chkim@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등록 제41-0187289

돌잔치, 피로연, 세미나 각종 모임 및 행사 (500석 완비)

소모임(룸) : 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대모임(룸) : 52인석, 92인석, 150인석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토·일·공휴일			
이용시간	성인 (중학생 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아동 (5세~7세)	이용시간	성인 (중학생 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미취학아동 (5세~7세)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 금요일 DINNER는 주말요일로 적용됩니다.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 671-1199

유·스퀘어 문화관 2F CGV 옆 터미널 2층